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삼미통상** 공기층 이중 조리기 '오븐콕'

# '2중 구조' 냄비 ... 음식물 끓어도 넘치지 않아

얼마 전 폴란드의 한 홈쇼핑에서 국내 주방용품 업체의 조리기가 소개됐다. 쇼호스트는 삼미통상의 '오븐콕'을 "스스로 요리하는 똑똑한 조리기구여서 가스불을 켜 놓은 채 다른 불일을 봐도 된다"고 소개했다. 폴란드 주부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아 삼미통상은 급하게 비행기로 제품을 실어날랐고, 판매량은 1만여개를 넘었다.

삼미통상 오븐콕의 시초는 1995년 출시된 제품이다. 그동안 조금씩 성능을 향상해 왔다. 조리 방식이 기존 제품과 다르다는 것을 외국 바이어들이 먼저 알아봤다. 수출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해외에선 반응이 좋았으나 국내에서는 주물냄비 등에 밀려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김차식 대표는 "으뜸중기 선정은 계기로 앞으로 홈쇼핑 등 국내 시장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식물이 타거나 넘치지 않아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가열하면 열과 직접 맞닿는 바닥면 온도는 높게 올라가지만 조리기가 옆면과 상부

바닥 온도 120도로 유지 조리할 때 젓지 않아도 돼

4년간 개발 ... 유럽서 입소문 폴란드선 판매 1만개 돌파

에는 열이 터디게 전달된다. 그래서 조리기구 안에 있는 음식물이 타거나 흘러넘친다. 오븐콕은 이럴 일이 없다. 세계 최초의 2중 알루미늄 냄비인 오븐콕은 알루미늄 사이의 공기층을 통해 안쪽 알루미늄에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2중 구조로 인해 냄비 안쪽의 바닥면과 측면 온도가 균일해지고 뚜껑까지 열이 골고루 전달된다"며 "조리할 때 내용물을 젓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바닥 온도는 섭씨 120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음식물이 덜 탄다. 이를 위해 손잡이 밑에 온도조절장치를 달았다. 냉동식품을 해동하지 않은 채 바로 조리해도 식재료의 맛과 식감을 고스란히 유지해준다.

김 대표는 "냄비와 프라이팬은



김차식 삼미통상 대표가 오븐콕의 2중 알루미늄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로 구성됐지만 빵 케이크 등과 같은 오븐용 요리도 가능해 오븐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개발 1972년 삼미산업(현 삼미통상)을 창업한 김 대표는 탄탄한 기술력으로 다양한 주방용품을 제조해 왔다. 회사 설립 후 3년 만에 국내 최초로 도금 가공기술 KS마크 1호를 획득해 당시 국내 도금기술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 대표가 오븐콕을 개발한 것은 '타지 않는 냄비를 개발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기존에 없던 제품이라 개발에만 4년 넘게 걸렸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 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크기 및 형태 등에 따라 제품 종류는 예닐곱 개다. 가격은 10만~20만원대로 다소 비싼 편이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삼미통상-오븐콕(02)3662-3255 △리만-킵스텐드 펌프(02)6925-3537 △오리엔탈 드림-탄소온열매트(031)352-7601 △코리아정보통신-21.5형 정전압 터치 올인원 PC(02)1588-5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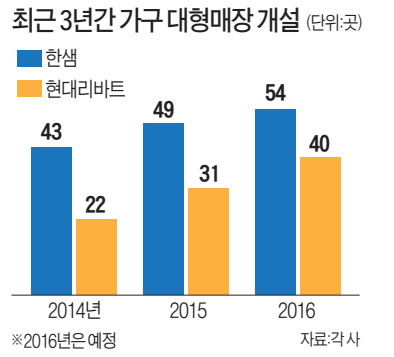
◆유럽 등 해외에서 인기

오븐콕의 조리 방식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아본 유럽 바이어 사이에선 몇 년 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주방용품의 본고장' 격인 독일로 월 2000여개씩 수출하고 있다. 폴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으로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 한샘·현대리바트 '덩치 싸움'

수도권·지방신도시 중심 가구 대형매장 공격 출진



가구업계 1, 2위의 '몸집 불리기' 싸움이 치열하다.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990㎡ 이상의 대형 대리점과 직영점을 잇따라 개설하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로 유통망을 확장하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매장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업계 1위 한샘이다. 전국에 총 54곳이 있다. 지난해 6곳에 이어 올 상반기 이미 5개의 대형 매장을 여는 등 꾸준히 숫자를 늘리고 있다. 한샘은 올초 수원 광교와 서울 상봉동에 직영 플래그십을 열고 울산과 전주, 천안 등에도 대형 인터리어대리점을 냈다.

현대리바트는 한샘을 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최근 1~2년 새 공격적으로 대형 매장 수를 늘리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잠실과 경기 분당, 전주 등 총 9곳에 새로 문을 열었다. 올해도 9곳에 매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울산과 경남 김해·양산, 경북 구미 등 4곳에 대형매장 개설을 완료했

다. 오는 18일에는 경기 동탄에 새로 문을 연다.

현대리바트는 지금까지 직영 전시장과 대형 대리점을 합쳐 총 35곳의 대형매장을 확보했다. 하반기에 평택과 제주 서귀포를 포함해 5곳에 대리점을 추가로 열을 해 안에 40개 대형매장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샘과 현대리바트는 매장 규모와 입점 지역 면에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문을 연 현대리바트의 울산 직영전시장 규모는 3630㎡다. 올초에 개설된 한샘 플래그십 수원광교점과 상봉점 면적도 3960㎡로 비슷하다. 1~2년 새 대형 대리점 입점 지역도 전주, 청주, 인천 등지로 겹치고 있다.

이수주 기자 onething@hankyung.com

### 청년희망재단·서울고용센터 공동 채용 박람회 연다

청년희망재단(이사장 박희재·오른쪽)은 서울지역 8개 고용센터와 15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희망재단은 협약에 따라 고용센터와 함께 서류전형 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주

는 '온리원 기업 채용박람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좋은 일자리 발굴과 청년 구직자 진로 지도에 힘쓰기로 했다.

서울고용센터(센터장 이현수·왼쪽)와 서울서초고용센터,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동부고용센

터,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관악고용센터 등 8개 고용센터 역시 우량 일자리 발굴과 구직자 진로지도,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 전기분해 살균 정수기 출시 쿠쿠전자 '인앤아웃 퓨어'

쿠쿠전자가 전기분해 살균 방식의 직수형 정수기 '인앤아웃 퓨어'를 15일 내놨다. 이 정수기는 물탱

크가 없는 직수형 제품으로 쿠쿠전자가 자체 개발한 전기분해 살균 기술이 적용됐다. 물이 통과하는 관로와 물이 나오는 꼭지까지 전기분해 살균 후 세척수로 씻어 내 정수한다. 가로가 13.5cm로 크기가 매우 작은 것도 특징이다.

## 제네시스, 그 두번째